



VALUE UNIVERSE

VALUE TIMES

2019년 03월 둘째주



뉴라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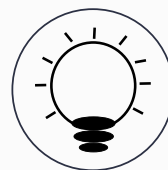
딜라이트



비피유홀딩스



가드넥



인텔렉추얼밸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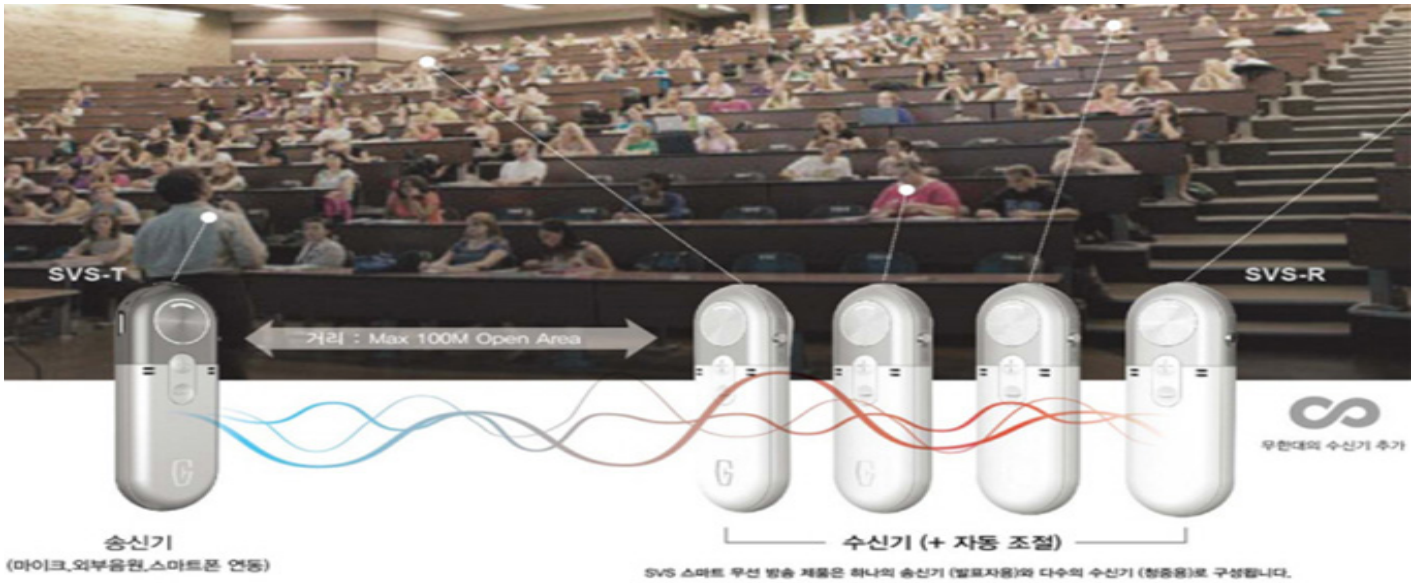


NEWRACOM leads New Era for New Radio Communication

NEWRACOM leads innovation
by creative technology development

와이파이얼라이언스(WFA), HaLow 제품 국제인증 위한 기준 수립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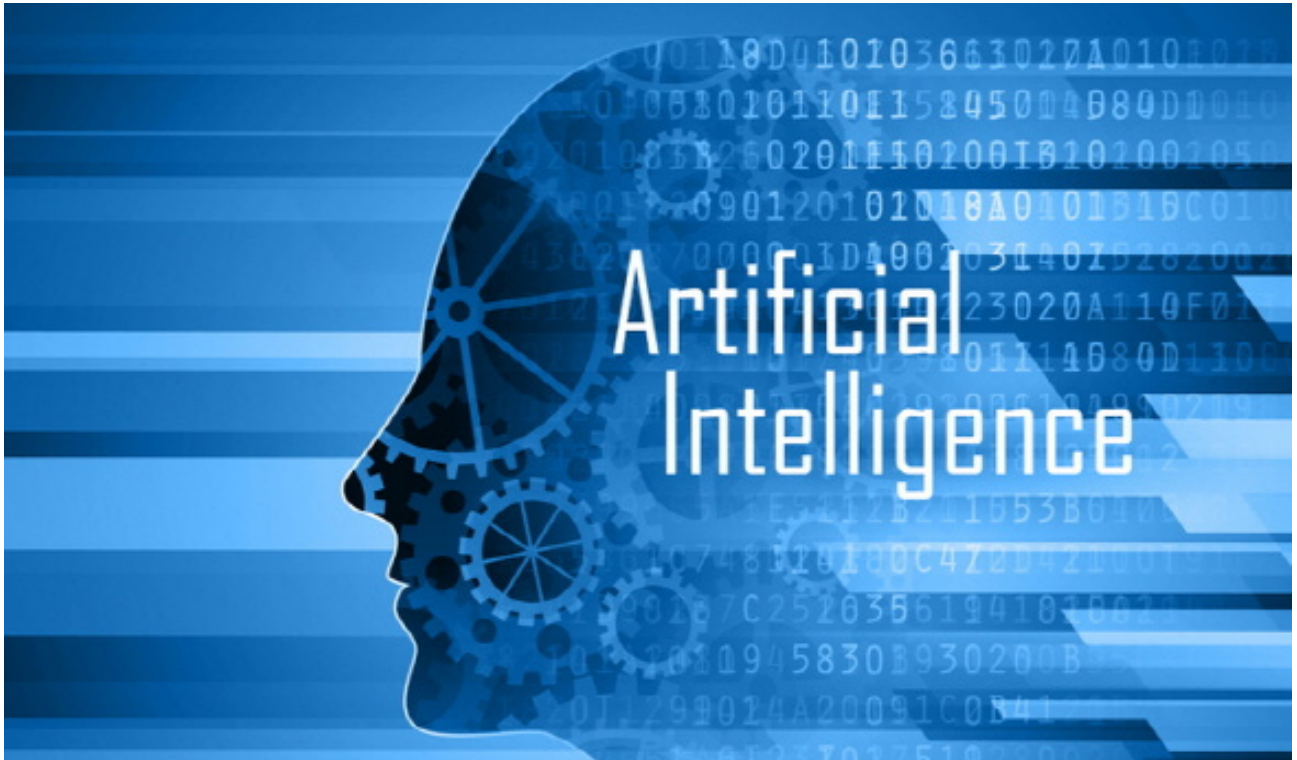
- 와이파이얼라이언스(WFA), HaLow 제품 국제인증 위한 기준 수립 착수
 - 헤일로 인증의 세부기준 수립을 위한 플러그페스트(plugfest) 이벤트 진행 (2019.1.28. ~ 2020.1월까지 진행)
 - 전 세계 유일무이한 상용칩을 출시한 뉴라컴(뉴라텍)이 주도
 - 자체 설계한 일부 기술 국제인증 기준에 반영
 - 타 경쟁사 대비 시장 선점에 유리한 위치 선점
 - 차세대 와이파이 규격인 802.11ax 기반의 '와이차이6'(Wi-Fi 6)
 - 금년 상반기부터 브로드컴,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을 통한 제품 출시 예상
 - 뉴라컴(뉴라텍)이 보유하고 있는 200여개의 관련 표준특허를 통한 본격적 로열티 수입 기대



난청인 위한 스마트 무선 송수신기 'SVS' 출시

■ 난청인 위한 스마트 무선 송수신기 'SVS' 출시

- 수신자의 청력 상태에 맞게 자동 조절(Auto-Fitting) 해주는 기능
 - 정확한 소리 청취에도 도움 (기존 무선 송수신기 제품들과 차별점)
- 하나의 송신기로 다수의 수신기 사용 가능
- 블루투스 방식을 사용
 - 최대 100m까지 수신자에게 깨끗하게 전달
- 크기가 10cm 내외로 휴대의 강점



투자자 대상 첫 오픈 하우스 개최

■ AI에 사람의 감성을 입히다

- 기술 개발 현황과 현재까지의 성과를 소개하는 사업 설명회 개최
 - 2019년 새롭게 출시될 제품 및 서비스들 소개할 예정
- AEI가 헬스케어, 금융 및 인간관계에 일으키고자 하는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
- 투자자를 포함한 참가자는 AEI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열린 토론회
 - 실제 회사 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에 참석해 BPU의 구성원과 소통



일본 도쿄서 FC(수소연료전지) 엑스포 참여

■ 일본 도쿄서 FC(수소연료전지) 엑스포 참여

- 일본 도쿄 '15회 FC(수소연료전지)엑스포' 단독 부스 마련 참여
- 한국 전시 업체들 규모도 작고 수도 적었지만 해외 바이어에게 기술력을 인정



인텔렉추얼벨류 사업현황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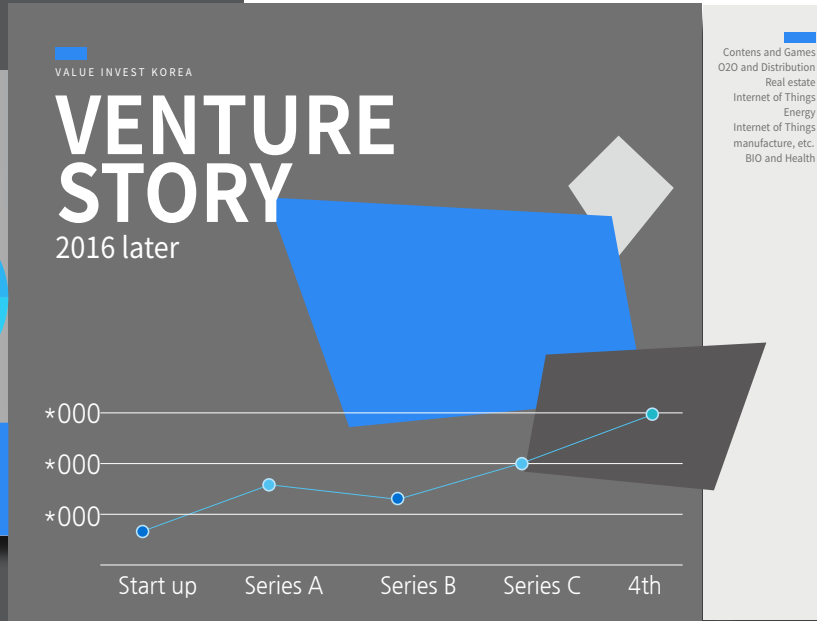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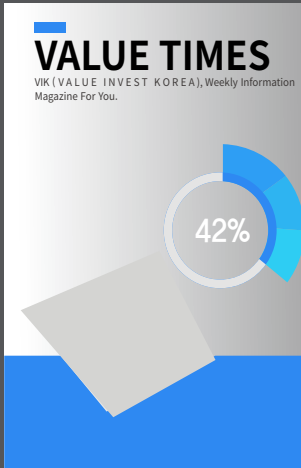
- 지적재산의 발굴 매입 확보 라이선싱 및 유동화, 지적재산을 활용하는 기업에 투자 및 출자, 지적재산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자문
- 유망 IP를 매입하여 직접 수익화를 실현
- 유망 IP보유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및 IP 경영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증대
→ 가치증가분으로 수익을 실현
- 특허 매각, 주식 처분 등을 통한 수익이 주된 수익원

■ 사업내역

- 세계적인 라이선스 기업 MPEG LA社가 보유한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표준특허를 활용한 로열티 수익과 매각 시세차익을 실현
- 2018년 상장기업 (주)아**의 자회사인 (주)노스** 주식을 인수하여 단기유동화를 통해 매출실현 및 특허 자문료 수익을 창출
- 현재 인공지능 관련 특허들 검토 중
- 2018년 인공지능 기반 의료정보 분석 및 진단업체인 A사에 투자를 진행
→ 인공지능 지적재산으로 향후 가치상승을 기대
- 스마트폰 잠금화면 지문인식 해제 및 광고에 관한 원천특허를 보유한 F사
→ 2017년부터 일본의 모바일 잠금회사를 상대로 진행해 온 특허소송 1심에서 승소
미국에서 애플과 삼성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진행 중
- 스마트폰, 바이오, 의료기기, 로봇, 딥러닝 등 여러 분야의 지적재산을 확보, 활용
→ IP사업을 꾸준히 확대

VALUE INVEST KOREA VENTURE STORY

제80회 2019.03.13



● 비상장벤처 차등의결권 등 허용해 '성장 사다리' 놓아준다



비상장벤처 차등의결권 등 허용

'성장 사다리' 놓아준다

차등의결권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주식 또는 복수의결권·복수의결권주식이라고도 한다.

넓은 뜻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의결권 제한'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1주(株)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로써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여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 “투자환경·규제 개선” 바이오헬스·핀테크·AI·ICT 등 기술력 높은 스타트업 발굴 집중,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
- 유니콘 기업 20곳 육성
AI·ICT는 유니콘이 핵심이며 5~10년 내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한 혁신 ICT기업을 발굴, 집중 육성하는 ‘미래 유니콘 50’ 프로그램을 올 하반기 도입
- 4년간 12조원 스케일업 펀드
벤처·창업에 민간자본 유입을 위해 공모·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전문회사(BDC), 후위투자로 결정된 지분가치를 선위투자로 산정하는 조건부 지분 인수계약 방식 등을 도입
→ 엔젤투자·클라우드펀딩 등에는 투자금 2배 완전보증(1000억원), 모집 기간과 대상 확대, 3년 내 기술우수중기 투자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음
- 벤처특별법을 개정, 경영권 희석 우려가 없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